

‘나’의 역사, ‘우리들’의 역사: 이로카와 다이키치의 ‘자기역사(自分史)’론을 단서로

야스오카 겐이치 (오사카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노주은

들어가며

20 세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을까. 방대한 축적이 있는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지난 포럼에서 토론된 ‘역사의 대중화’ 문제와의 접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번 개최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가 차원에서는 20 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큰 줄기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역사 인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는 국가의 존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국가에 어떠한 역사 인식이 가능할까 라는 범주는 각 나라의 역사학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시민 개개인의 역사 의식과도 무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사회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역사 교육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역사 인식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해 온 점은 없었을까. 필자는 “상대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문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인식”도 탐구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필자의 경험도 함께 소개하면서 시민이 서술하는 자신의 역사가 가지는 의의를 증시하는 입장에서 현대 일본의 시민의 역사 의식의 한 단면을 다루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역사라는 말을 넓게 해석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역사 연구의 ‘외부’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1990 년대 이후 ‘경험’이라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과정을 현재의 역사 연구로 이어지는 전환점으로서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 20 세기의 전쟁, 식민지 지배와 화해를 둘러싸고

20 세기 말 냉전 종식으로 인한 변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걸쳐 있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는 등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전후 50 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개인의 전쟁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전쟁 책임을 둘러싸고 철학자, 문학가 등도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¹ 한국 사회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 당사자들에 의한 증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증언과 자료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양심적인 역사학자와 활동가들에 의해 전쟁 당시의 시스템화된 성폭력의 실체가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은 매스미디어와도 궤를 같이하여, 이 시기의 텔레비전 방송은 그 이전과 이후보다 더 많이 전시기의 가해 문제를 다루었다.²

시대의 변화는 역사 연구 전반의 변화와도 연동되어 있었다. 이 시기 전후 역사학의 전환기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의 국민국가(비판)론일 것이다.³ 당시에든 지금도 니시카와의 논의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개별적으로 세분화되어 가는 연구를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비판적 연구로 연계시켜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은 큰 공로이다.

또한 국민국가 비판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어 국민 외부에 놓여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역사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재일조선인, 류큐·오키나와사, 아이누 민족사 연구가 진전되고, 이와 병행하여 ‘제국의 역사’, ‘식민지의 역사’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연구 분야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다.⁴

식민지 연구의 진전은 역사 교과서의 서술도 변화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같은 상징적인 문제가 종종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외의 부분도 변화해왔다는 점이 간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구자와 학생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배우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국민국가의 틀에서 논의되었던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전문가들 간의 견해 차이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도 이 시기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자체가 변화하면서 역사학이 그동안 중시해왔던 학문과 사회와의 관계도 변질된 측면이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자신의 역사 연구를 통해 전쟁 희생에 대한 화해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전시 중의 강제징용을 둘러싼 니시마쓰 건설(구 니시마쓰 구미)과 중국인 노동자 및 그 유족 간의 화해이다.⁵ 노동 현장의 현 관리자인 중국전력도 가세해 화해가 다져진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¹ 코모리 요우이치, 타카하시 테츠야 공편 (이규수 역),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2000. (일본어 원서: 小森陽一, 高橋哲哉編, 『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を超えて』, 東京大学出版会, 1998.)

² 米倉律, 『「八月ジャーナリズム」と戦後日本: 戦争の記憶はどう作られてきたのか』, 花伝社, 2021.

³ 니시카와의 저작은 많은데, 예를 들면 『国民国家論の射程—あるいは“国民”という怪物について』(柏書房, 1998)이 있다.

⁴ 식민지 연구의 축적에 대해서는 日本植民地研究会編의 『日本植民地研究の現状と課題』(アテネ社, 2008) 및 『日本植民地研究の論点』(岩波書店, 2018)을 참조.

⁵ 内田雅敏, 『元徴用工 和解への道—戦時被害と個人請求権』, 筑摩書房, 2020.

전반적으로 보면, 바쁘고 규율화되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과 유동화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새로운 통합적 접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공유가 확실히 가능한 동일본대지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사건’과 그곳에서의 ‘경험’으로의 회귀가 나타나고 있다. ‘경험’이 역사 연구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패전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세대도 교체되면서 ‘왜 전쟁 경험을 계승해야 하는가’라는 지금까지는 자명했던 질문도 다시 한 번 되물게 된 상황이 있을 것이다.⁶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연구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처럼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행위, 특히 자신의 역사에 대해 쓰는 행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역사학에서 결코 많지 않다.

국제적으로 보면, 기억에 대한 학술적 관심의 증가와 상호보완적으로 자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술사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폴 톰슨(Paul Thompson)은 내러티브(Narrative)라는 측면에서 구술사와 통하는 자서전 연구의 경위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⁷

톰슨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자서전과 편지, 일기 등 개인이 쓴 기록(Life-writing)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1999년 중국 베이징 대학교(北京大学)의 문학연구자 자오바이성(趙白生)의 제안으로 International Autobiography Association이 결성되었다. Life Writing은 자서전까지 포함하는 매우 넓은 카테고리인데,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7권의 책으로 구성된 통사적 연구 성과가 나왔다. 그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1945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⁸

물론 일본에서도 과거에 쓰인 자서전이나 수기에 대한 역사 연구는 많다. 최근에는 개인이 남긴 기록을 ‘에고 다큐멘터리(エゴ・ドキュメント)’라는 이름으로 다루려는 연구 동향이 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개인 차원의 역사 서술과 역사학과의 관계는 극히 적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까지 포함한 상호 이해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는 시민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사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⁶ 蘭信三, 小倉康嗣, 今野日出晴, 『なぜ戦争体験を継承するのか: ポスト体験時代の歴史実践』, みずき書林, 2021.

⁷ Thompson, Paul, Joanna Bornat (2017)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4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⁸ Hayes, Patrick ed. (2022) “The Oxford History of Life-Writing: Volume 7: Postwar to Contemporary, 1945-2020” Oxford University Press.

⁹ 長谷川貴彦, 『エゴ・ドキュメントの歴史学』, 岩波書店, 2020.

2. 역사의 '현장'

이 문제는 '역사의 대중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단 확인해보면, 역사학 자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저조하지만, 역사 연구자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문적인 역사학자 (예를 들어, 이소다 미치후미(磯田道史), 고자 유이치(吳座勇一), 요시다 유타카(吉田裕))가 집필한 책들은 수십만 부씩 팔렸다. 이는 일본의 독서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포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역사 연구를 다루는 '준전문가'와의 교류도 고령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유지는 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존 역사학과 사람들의 연결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역사학과 사람들의 활동이 괴리되어 있고, 전통적 관심과는 또 다르게 존재하는 넓은 의미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연결 지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새로운 관심이 나타나는 장을 나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부르고 싶다.

대중화를 이해할 때에는 각종 콘텐츠 산업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상품화와 소비라는 측면을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느끼는 절실한 필요성에 기반한 넓은 의미에서의 '역사'에 기울이는 관심과 이를 표현한 작품이다.

첫째, 사례로 꼽고 싶은 것은 '투병기 문고(闘病記文庫)'이다. 최근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 투병기를 모아놓은 코너가 만들어지고 있다. 투병기란 병과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경험을 되돌아보며 정리한 작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의 역사다. 왜 이런 작품이 요구되는 것일까. 병에 대한 표준적인 지식이라면 학회나 전문가가 감수한 '과학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확률로써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환자 자신에게 주는 '의미'는 표준화할 수 없다. 각자의 상황을 가진 개인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인의 경험을 접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둘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치매 예방이라는 건강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회상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다. 일본 중부 지방 아이치현(愛知県) 기타나고야시(北名古屋市)에서는 '쇼와 일상 박물관(昭和日常博物館)'으로 20세기 서민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물건들을 수집해 이를 지역 모임에 제공하면서 회상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로부터 수집된 과거의 물건들을 단서로 이야기하고 또 귀 기울여 듣는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고독과 고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관서 지방의 교토시(京都市)에서는 고령자의 고독과 고립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모임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시민 활동이 행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사람을 지원하는 전문직의 관점에서 사람이 다른 개인의 역사를 접하고 자신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갖는 ‘효용’에 주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개별화된 역사 의식을 둘러싼 실천적 요구와 역사학의 거리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역사학은 어떻게 해야 이 새로운 필요성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전쟁과 식민주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참고할 만한 것으로 1985년에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된 학습권 선언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서두에서 학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습권은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끊임없이 질문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교육적 수단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집단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 국민교육연구소 역).

자기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학습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관동 지방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가와사키시(川崎市)에 살던 한 재일조선인 여성이 지역 식자학급(識字學級)에서 글자를 익혀 쓴 인상적인 문장은 그녀들의 글을 모은 책의 제목이 되었다. “나도 시대의 일부입니다.”¹⁰

민족적 마이너리티가 모여 사는 이 지역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국 최초로 규제 조례가 제정되었다.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있는 지역에서 쓰인 이 문장은 사람들의 권리와 역사 인식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

3. 이로카와 다이키치(色川大吉)와 자기 역사(自分史)

역사를 서술할 권리라고 말할 때, 그 서술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겠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학자 이로카와 다이키치(1925-2021)는 1970 년대에 ‘자기 역사(自分史)’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자기

¹⁰ 康潤伊, 鈴木宏子, 丹野清人編, 『わたしもじだいのいちぶです 川崎桜本・ハルモニたちがつづった生活史』, 日本評論社, 2019.

역사(自分史)라는 말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왜 이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 의지를 불러일으킨 것일까. 이로카와의 주장에는 오늘날 검토할 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우선 이로카와의 역사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역사 연구의 전개와 더 나아가서는 역사를 쓰는 주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로카와 다이키치의 『메이지 정신사(明治精神史)』를 비롯한 역사학자로서의 연구는 현재까지도 일본 연구의 고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중사라는 역사적 관점은 사회와 마주하면서 만들어졌다. 특히 1960년 안보투쟁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이미 한국에서는 학생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최대 규모의 대중적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대중 동원을 동반한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대한 항의 역시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만들었다. 이로카와는 이 일련의 움직임에 역사학자로서 참가하며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연마해 왔다. 당시 자명하게 여겨졌던 전위(前衛)의 지도와 대중(과 그 행동)의 틀을 되묻는 시좌는 이 시기가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본인은 말하고 있다.¹¹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그는 도쿄도 하치오지(八王子)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계속하며 민중 스스로가 헌법을 구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68년 이 지역에서 발견된 이쓰카이치(五日市) 헌법 초안은 일본 지역 사회에 사는 민중들이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상하고 미래 사회를 전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로카와는 학생, 시민들과 함께 필드워크를 진행하면서 이 희귀한 자료를 만나게 된 것이지만 물론 역사가가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자료뿐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시모토 요시오(橋本義夫, 1902-1985)와의 만남이 있었다.

하시모토는 전쟁 전에 태어나 책과 역사를 매우 좋아해 서점을 운영하면서 지역 문화 활동을 꿈꿨던 인물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전시기에는 전쟁 협력의 깃발을 휘날렸던 것에 대해 전후 ‘전쟁 책임 자기 조서(戦争責任自己調書)’를 작성하여 자신의 죄상을 기술하는 깊이 자기 자신과 맞선 사람이었다.¹²

이 하시모토 요시오라는 인물은 지방에 역사와 관련된 기념비를 세우는 활동 등을 병행하며 1950년대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일상의 실감을 기록하는 것을 장려했다. 관계자도 늘어났고, 1960년대 후반에는 드디어 책자가 만들어졌다. 이로카와는 이러한 하시모토의 실천을 보고 「현대의 상민: 하시모토 요시오론(現代の常民: 橋本義夫論)」을 집필하였다.¹³

그 후 1970년,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로서 자기

¹¹ 色川大吉의 『自分史: その理念と試み』(講談社, 1992) 수록의 「六月には重い霖雨が降る」를 참조.

¹² 橋本義夫(橋本鋼二 편), 『暴風雨の中で』(私家版), 1996.

¹³ 色川大吉의 『ある昭和史-自分史の試み』(中央公論社, 1975)에 수록됨.

역사(自分史)라는 말을 붙인 『어떤 쇼와사: ‘자기 역사’의 시도(ある昭和史:「自分史」の試み)』를 집필했다. 하시모토의 부름에 응답하는 형태로 역사학자인 자신도 역사를 살아온 경험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소하였다. 이 책은 그해 마이니치 출판문화상(毎日出版文化賞)을 수상하며 폭넓은 독자층을 얻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자기 역사(自分史)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이로카와 다이키치라는 개성적인 역사학자가 발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지도’하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시대를 마주하는 실천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의 안보 경험과 겹친다.

이로카와의 시작 동기는 쇼와(昭和) 전전기(戰前期)를 경험한 세대로서 전쟁을 수행한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를 되짚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후 오키나와(沖縄)와 홋카이도(北海道)를 비롯해 전국 각지로 자기 역사(自分史)의 모임이 퍼져나갔고, 자기 역사(自分史)를 대상으로 한 자비 출판이 지역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 보급되었다. 이로카와 자신도 각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자기 역사(自分史)에 대해 논의했다.

그 후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자기 역사(自分史) 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어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대형 신문사에서 자기 역사(自分史)를 작성하기 위한 연표를 판매하거나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자기 역사(自分史)를 쓰는 등의 사업에 뛰어들었다.¹⁴ 또한 취업 활동이나 학교 교육에서 자기 역사(自分史)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4. 자기 역사(自分史)와 지역사(地域史)

나는 ‘자기 역사(自分史)’를 쓴다는 실천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지역이나 또 다른 타자와의 연결이 밝혀지는 탐구이며, 그렇게 개인과 지역, 국가의 역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역사학과 교차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예로서 여기서는 필자 자신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나가노현(長野県) 남부 시모이나(下伊那) 지방의 역사에 주목하고 싶다. 특히 1970년대부터 자기 역사(自分史)의 문제 제기를 지역사(地域史) 탐구와 자각적으로 연결시켜 파악한 민속학자 고토 소이치로(後藤宗一郎, 1933-2003)의 실천을 시작으로 만주 이민의 역사를 밝혀온 시민 활동과 연결시켜 본다.

고토 소이치로는 메이지 대학(明治大学)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한 후 안보투쟁 후에는 연구자의 길을 걸으며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 1875-1962)의 연구를 통해 지역과 마주하는 학문으로서 민속학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¹⁴ 小林多寿子の『物語られる「人生」－自分史を書くということ』(学陽書房, 1997), 釋七月子の『「自分史」は語る－戦争の記憶、自分史における虚構、台湾日本語世代の自分史－』(晃洋書房, 2020)를 참조.

고토는 자신의 고향인 나가노현(長野県) 남부 토야마(遠山) 지역에서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사 편찬을 이끌었다. 고토는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유대를 살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 편찬을 추진했다. 그것은 마을의 자기 역사(自分史)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토와 지역 주민과의 연계는 역사서 발간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된 마을의 역사를 주민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고 마을지(村誌)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토야마 조민 대학(遠山常民大学)이 결성되었다.¹⁵ 고토가 제창한 조민 대학 운동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 이후 전국에 여러 연대가 생겨났고, 고토는 각지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조민 대학의 실천은 인접한 시정촌(市町村)으로 확산되어 이다 역사 대학(飯田歴史大学)이라는 학습 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고토는 그곳에서 열린 강좌에서 지역의 역사와 자신의 역사를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서 지향하는 자기 이해로서의 지역사는 음(負)의 역사를 포함하여 자신의 역사를 밝히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다 역사 대학의 강좌에서는 전전(戰前)에 개척단으로서 중국으로 건너간 경험이 있는 수강생들의 증언이 이루어졌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보내진 수많은 만주 이민의 역사의 규명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만주 이민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을 기반으로 2000년대부터 전쟁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다시 역사 연구소(飯田市歴史研究所)라는 지자체 단위의 역사 연구 전문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과 연동해갔다.¹⁶ 인구 10만 명의 이다시(飯田市)는 지역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연구자를 임기제 연구원으로 채용해 지역 역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역사 연구소와 시민에 의한 구술 조사 활동은 함께 걸음을 내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해 왔다.

시민들이 결성한 만주 개척을 구전하는 모임 중에는 집단 자결에서 살아남아 귀국한 당사자들도 있었다. 상처 입은 역사를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금씩 시간을 들여 신뢰가 쌓이고 지역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전후 중일우호운동(日中友好運動)도 활발했다. 또한 중국 잔류 일본인의 아버지로서 또 후원자로서 전국에 문제를 호소해 온 승려가 있는 등 다양한 관계자들에 의한 방대한 축적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2010년대에는 만몽개척평화기념관(滿蒙開拓平和記念館)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¹⁷ 중일재불전(日中再不戰)의 비(碑)가 있는 기념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정리하고 계승하기 위한 시설이다.

¹⁵ 地域文化研究会編, 『地域に根ざす民衆文化の創造』, 藤原書店, 2016.

¹⁶ 飯田市歴史研究所에 대해서는 이다시 역사 연구소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ity.iida.lg.jp/soshiki/39/>

¹⁷ 만몽개척평화기념관(阿智村)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manmoukinenkan.com/>

지역의 역사가 쓰일 때 그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가, 시모이나(下伊那) 지방의 사례는 주민 스스로의 학습과 조사 및 연구가 가진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치며

필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다시 역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곳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자기 역사(自分史)를 쓸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¹⁸

여기에서 쓰여진, 중국에 뿌리를 둔 한 여성의 자기 역사(自分史)를 다루고자 한다.¹⁹ 자기 역사(自分史)를 쓰기 위해 세미나에 모인 아이자와 리이(相沢莉依) 씨는 어머니가 중국 잔류 부인이었다. 전후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자와 씨는 그곳에서 자랐고, 대학 직원으로 일하다가 1990년대에 어머니의 뿌리를 따라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을 하면서 일본어도 익혔다.

그녀가 집필한 『운 - 행운 행복으로 축복받은 평범한 인생 (幸 - 幸運幸福に恵まれた平凡な人生)』(2016)이라는 자기 역사(自分史)는 자신의 반평생을 돌아본 것으로, 일본과 중국을 넘나들며 살아온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경험을 담은 기록이다. 이 지역의 역사 연구가 아무리 활발해도 그녀가 직접 글을 쓰지 않았다면 절반은 중국 역사, 절반은 일본 역사로 구성된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설령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두 나라 역사에 모두 정통하지 않으면 그 경험의 전모를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독특한 경로를 포괄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당사자인 아이자와 씨 자신이었다. 이 책이 2021년 ‘여성문화상(女性文化賞)’을 수상한 것은 상징적이며, 지역의 역사 문화가 다양한 뿌리를 가진 당사자에 의해 그려질 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²⁰

세미나의 장을 공유한 사람들도 중국 귀국자인 아이자와 씨를 얼굴이 보이는 존재로 만나게 된 것이다. 아이자와 씨의 예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역사를 깊어진 주체로서 이야기하는 장이 공적으로 구성될 때 비로서 실제 다수의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화된 현재의 시민에 걸맞은 역사 의식이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 흘러들어와 녹아들어 있다. ‘나’의 역사가 쓰여지고 공유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진다.

글로벌 히스토리의 문제 제기는 국민국가의 틀을 고정시키고 그 안을 균질화하는

¹⁸ 세미나의 기록은 安岡健一の 「「個」の歴史から地域を見る：「自分史」が問い直すもの」(『飯田市歴史研究所年報』16号, 2019)를 참조.

¹⁹ 安岡健一, 「ある自分史にみる満洲の記憶と地域史研究の可能性」, 佐藤量, 菅野智博, 湯川真樹江編, 『戦後日本の満洲記憶』, 東方書店, 2020.

²⁰ 「女性文化賞に飯田の中国残留日本人2世相沢さん 平和への思い 日本語で紡ぐ」, 『信濃毎日新聞』, 2021년 10월 19일.

상상력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²¹ 구체적인 단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역사학이 지금까지 쌓아온 과거 자체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과 함께 그것을 구현하는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관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역사학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사나 심판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에 집중해 왔던 것에 더하여, 사람들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도 새롭게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 역할을 해나감으로써 가능해지는 다른 전문가 혹은 많은 비전문가와의 연계, 그리고 다음 시대의 보다 확장된 역사 연구의 주역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국의 젊은이들이 역사학자와 더불어 가족사를 포함한 자신 역사(自分史)를 함께 쓰는 워크숍 등 ‘현장’의 형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개개인의 역사를 서술할 권리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역사학의 시기 구분에서 말하자면 특히 지금 현재와 접점을 갖는 현대사가 담당하는 직능의 하나로서 더해진다면, 국경을 초월한 대화도 촉진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역사학의 시민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각자 살고 있는 사회의 ‘지금, 여기’에서의 역사 의식의 방식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할 것이 분명하다.

■ 야스오카 겐이치(安岡健一/YASUOKA Kenichi)

2004년 교토대 농학부 생물자원경제학과 졸업. 2006년 교토대 대학원 농학연구과 석사과정 졸업. 2009년 교토대 대학원 농학연구과 박사과정 지도인정 수료. 교토대 박사(농학). 현직은 오사카대 대학원 인문학연구과 준교수. 전문 분야는 일본근현대사, 구술사.

주요저작: 『「他者」たちの農業史』(‘타자’들의 농업사) 京都大学学術出版, 2014년. 「共に生きる「仲間」を目指して」(함께 사는 ‘동료’를 지향하며) 高谷幸編『多文化共生の実験室：大阪から考える』(다문화 공생의 실험실: 오사카로부터 생각하다) 青弓社, 2022년. 「聞き取り / オーラルヒストリー」(청취 조사 / 구술사) 岩城卓二ほか編『論点・日本史学』(논점·일본사학) ミネルヴァ書房, 2022년 8월.

²¹ 콘라트, 제바스티안(小田原琳訳),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批判的歴史叙述のために』, 岩波書店, 2021.